



KIA는 1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롯데와의 시즌 12차전에서 4-2 승리를 거뒀다.

KIA구단 제공

호랑이 뒤통은 발동, 롯데 잡고 3연승

선발 임기영, 6이닝 2실점 호투
최형우, 경기 뒤집는 2점포 작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한 끝에 롯데전 승리를 거뒀다.

KIA는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12차전에서 임기영과 최형우의 활약에 힘입어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KIA는 3연승을 달성하며 54승 2무 69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경기는 최근 부진했던 임기영이 호투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임기영은 8월 15일 SK전과 21일 LG전에서 부진한 탓에 패전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그의 컨디션 난조가 계속되

자 27일 삼성전에서는 이민우가 대신 선발로 등판하기도 했다. 그러다 10일 만에 다시 선발 기회를 잡았다. 임기영이 이번에도 부진하면 내년 선발진 구성은 복잡하게 꼬일 상황이었다.

다행히 임기영은 우려를 씻어냈다. 롯데전 좋은 컨디션을 드러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6이닝 2실점 2자책점을 기록했다. 피안타 7개와 볼넷 1개를 허용했지만 탈삼진 6개를 따내는 등 위력적인 피칭을 했다.

임기영은 경기 초반부터 막강한 어깨를 자랑했다. 1회초 손아섭과 강로한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전준우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월슨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넘겼다. 2회초에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한동희를 뜬공, 신본기와 허일을 삼진으로 막아냈다.

3회초에는 롯데 반격에 잠시 흔들렸다. 조흥석, 손아섭, 강로한, 전준우의 이어지는 안타세

례에 2점을 내줬다.

4회초부터는 다시 힘을 냈다. 안중열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지만 신본기, 허일을 야수 도움을 받아 처리한 뒤, 조흥석을 삼진으로 제압해 아웃 카운트를 채웠다.

5회초에는 손아섭에게 우전안타를 허용했지만 강로한을 삼진으로, 전준우의 타구를 병살로 연결했다. 6회초도 호투는 이어진다. 월슨에게 좌익선상에 빠지는 2루타를 허용하며 출발했지만 한동희, 신본기를 3루수 땅볼로 막은 뒤 허일을 삼진으로 처리했다.

KIA타선도 임기영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1회말 1사 3루 찬스에서 터커가 우전적시타로 1점을 뽑은 덕분에 경기를 리드했다. 3회초 롯데가 2점을 만드는 바람에 1-2로 주도권이 뒤집어졌지만 KIA방망이는 곧바로 반격했다. 3회말 터커의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루 기회에서 최형

우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2점포를 뽑았다.

아슬아슬한 1점차 승부는 6회말 벌어졌다. 이번엔 볼넷으로 출루한 최형우가 1점을 더했다. 유민상의 안타로 3루까지 도달한 최형우는 김주찬의 타구가 땅볼로 연결되는 틈을 타 홈을 밟았다.

◆31일 경기

KIA가 타너와 터커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했다. KIA는 31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날 선발로 나선 터너는 7이닝 2실점 1자책점을 기록, 호투를 펼치며 승리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터너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불펜진은 전상현과 문경찬이 1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 승리를 지켰다.

또 타선에서는 터커의 활약이 뜨거웠다. 터커

는 번타자로 출전해 2타수 1안타(1홈런) 2타점 1득점 2볼넷을 기록했다. 그의 결정타는 4회말에 나왔다. 2사3루에서 중월 역전투런포를 뽑으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한경국7자 hkk42@srb.co.kr](mailto:hkk42@srb.co.kr)

■1일 전적

롯데	002	000	000	2
KIA	102	001	00X	4

△ 승리투수 = 임기영(2승3패) △ 세이브투수 = 문경찬(1승2패) △ 패전투수 = 서준원(3승8패) △ 홈런 = 최형우 16호(3회2점·KIA)

■31일 전적

롯데	200	000	000	2
KIA	110	200	00X	4

△ 승리투수 = 터너(7승 11패) △ 세이브투수 = 문경찬(1승 2패 18세이브) △ 패전투수 = 김원중(6승 10패) △ 홈런 = 터커 8호(4회2점·KIA) △ 민병현 8호(1회1점·롯데)

피겨 유망주 박연정, '깜짝 은메달'

주니어 그랑프리서 186.58점 획득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들이 연이어 메달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박연정(13·하계중)이 '깜짝 은메달'을 땀다.

박연정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대회 2019-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2.23점을 획득, 전날 쇼트프로그램(64.35점)과 합계 총 186.58점을 얻어 2위를 차지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였던 박연정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6.74점, 예술점수(PCS) 55.49점을 얻어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박연정은 처음으로 나선 ISU 주관 대회에서 '깜짝 메달'을 따며 기대감을 높였다.

한국 피겨는 지난달 말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위서연(14·도장중)이 은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첫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해 수행점수(GOE)를 1.60점이나 쟁긴 박연정은 이어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로 실수없이 뛰었다.

트리플 살코 단독 점프에서 착지가 흔들려 GOE가 1.17점이나 깎인 박연정은 흔들리지 않고 플라잉 카멜 스피를 레벨4로 처리했다.

스텝 시퀀스로 연기를 이어간 박연정은 트리플 루프, 트리플 플립,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더블 악셀을 모두 무난하게 소화했다. 점프 과제를 모두 마친 박연정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피와 레이백 스피를 레벨4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함께 출전한 지서연(14·도장중)은 프리스케이팅에서 112.00점을 얻어 전날 쇼트프로그램(64.35점)과 합계 총 179.23점을 받아 4위에 자리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에 올라 메달 기대를 높였던 지서연은 프리스케이팅에서 TES 56.81점, PCS 55.19점을 받는데 그쳐 순위가 두 계단 내려갔다.

지서연은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더블 악셀-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트리플 루프-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회전자 부족 판정을 받는 등 점프에서 크게 흔들려 아쉬움을 남겼다.

미국의 엘리사 류가 208.10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179.29점을 받은 아나스타 타라카노바(러시아)에게 돌아갔다. 뉴스



KIA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야구 유망주 기부금 전달식.

KIA구단 제공

KIA, 야구꿈나무에 1억700만원 전달

'러브투게더 데이' 취약계층 지원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올 시즌에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전에서 2019시즌 제3회 타이거즈 러브투게더 데이를 개최했다.

KIA와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를 통해 적립한 기금(5억3천만원) 중 일

부인 1억700만원을 29명의 야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해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전달식에는 기아차 임직원을 대표해 정장근 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KIA타이거즈 조계현 단장이 참석했다.

KIA와 기아자동차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야구단에서 활동하는 선수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꿈나무들을 추천 받은 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유망주에게는 학년과 경제 상황에 따라 장학금이 맞춤 지원된다. 한경국7자 hkk42@srb.co.kr

'아쉽다' 정현, US오픈 16강행 좌절

단식 본선 3차전서 나달에 패배
"부상없이 마친 것이 좋은 부분"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3회전까지 진출한 정현(23·한국체대·170위)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부상없이 경기를 마친 것은 좋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본선 3회전에서 나달에 0-3(3-6 4

-6 2-6)으로 졌다.

경기 후 정현은 매니저먼트사인 IMG 코리아를 통해 "경기가 안 풀렸다고는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경기할 때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상대 선수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많은 팬 분들이 현장에서 응원해주셨고, 늦은 시간 새벽에 TV로 경기를 지켜봐 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저도 실망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